

『철도와 근대 서울』

정재정

근대 서울은 철도가 만든 도시다. 경인선(1899년)부터 경경선(중앙선, 1942년)까지, 서울을 거점으로 간선철도망이 형성되는 동안 서울은 인구 20만 도시에서 100만 도시로 팽창했다. 철도는 일제가 서울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지렛대로서 충실히 기능했다. 그 와중에서, 서울시민은 철도를 통해 차별과 억압 및 수탈에 신음하면서도 근대문명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활용하는 주체로서 성장했다. 서울이 한반도의 一極中心인 점을 감안하며 이것은 그대로 한국과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역사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는 철도의 시대였다. 선진국은 철도를 매개로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후진국은 철도를 장악해서 침략하는 선진국 등살에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철도가 문명의寵兒이자凶器인 所以다. 이런 鐵道觀을 기조로 하여, 『철도와 근대 서울』은 철도가 서울 곧 한국의 근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에서 綜合的·複眼的 시야에서 조감했다. 철도를 통해 근대 서울 내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습을 극명하게 포착했다. 이것이 곧 서울과 한국의 식민지적 근대이자 자화상이다.

정재정(鄭在貞, CHUNG JAE-JEONG)은 한국근대사, 한일관계사, 역사교육의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와 동경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물관장, 시민대학장, 인문대학장, 대학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역사문제연구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사연구회, 경제사학회, 한일관계사학회 등에서 활약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의 위원, 한일미래포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의 운영자문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 독일, 미국 등의 역사공동연구에 참가하고, 한일 양국정부가 지원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1,2기)의 총간사를 겸임했다. 북해도대학, 동경대학 등의 특임교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동북대학, 에케트국제교과서연구소 등의 외국인 연구원으로서 교육과 연구에 임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이다.

주요 著書로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 『韓國의 論理-轉換期の 歷史教育과 日本認識』, 『일본의 논리-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 『서울과 교토의 1만년』,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한일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 『한일회담·한일협정, 그 후의 한일관계』, 『新しい韓国近現代史』, 『韓國と日本-歷史教育の思想』, 『帝國日本の植民地支配と韓国鉄道』, 『日韓 '歷史対立' と '歷史対話'』, 『철도와 근대 서울』 등. 주요 譯書로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한국병합사의 연구』, 『러일전쟁의 세기』, 『일본의 문화내셔널리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등. 주요 공저로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한국철도 100년사』, 『한일교류의 역사』, 『서울역사 2000년』, 『서울근현대역사기행』,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Designing History in East Asian Textbooks』, 『History Textbooks and the Wars in Asia』, 『近代朝鮮工業化の研究』 등 다수가 있다.